

연구논문

# 국제 노동력 이동과 사회적 연결망 -경기도 마석의 필리핀인 노동자 집단을 중심으로-\*

박 경 태 · 설 동 훈 · 이 상 철

외국인노동자는 출신 국적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보이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은 이들의 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논문은 외국인노동자 중에서 경기도 마석에 거주하는 필리핀 출신 노동자들과 마석에서 일한 후 필리핀으로 돌아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지심층면접을 함으로써 사회적 연결망이 이들의 이동-정착-노동-귀환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를 조사하였다.

필리핀 사람이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연결망을 이용한다. 이들은 이동에 필요한 금전적인 비용,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공동체의 역할, 이동에 필요한 정보, 이동을 정당화시켜주는 사회적 규범 등을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서 확보한다. 외국으로 나가려는 필리핀 사람들 중에서 한국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각종 비용이나 기대 임금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이 제공하는 혜택에 기초해서 선택을 한다.

사회적 연결망은 이동에 수반하는 비용과 위험을 감소시키므로 일단 망이 구축되면 급속하게 확장되는 성향을 갖는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국가간에 이동하는 노동력의 양을 결정하는데 송출국의 사회적 연결망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90년대에 들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노동자의 수가 급증한 것은 한국 내에서의 노동력 수요 증대에도 원인이 있지만, 일단 시작된 사회적 연결망이 급속하게 확장된 데도 그 원인이 있다. 한국의 경기 침체로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떠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이지만 여전히 직업을 찾아서 입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과 몇 차례에 걸친 불법체류 벌금 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송출국의 경제 상황과 이미 형성된 사회적 연결망이 이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 I. 머리말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한국 사회에는 외국인노동자라는 새로운 집단이 형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1997년도 자유공모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논문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논평과 제안을 해주신 익명의 논평가들에게 감사드린다.

성되기 시작했다. 미국에 이민을 가거나 중동의 여러 나라에 건설노동자들을 보내는 것처럼 외국으로 노동력을 보내던 입장에 있던 한국이 이제는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된 것이다. 과거에는 외국인이라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또는 관련 종사자들, 외교업무 관련 종사자들, 또는 관광객 정도에 불과했었고, 외국인의 이미지도 미국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 출신의 모습을 그리게 했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중심으로 한국보다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떨어지는 나라 출신의 외국인노동자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다. 비록 한국이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신들의 출신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더 나은 취업 기회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한국으로 몰려 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오랫동안 단일민족·단일문화권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에 따른 이민족·이문화와의 접촉은 우리에게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충격을 주고 있다. 외국인노동자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또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지 이 집단이 우리에게 생소한 새로운 집단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들 중 많은 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소위 '3D 업종'이라고 불리는 영세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따라서 계급적으로 볼 때 이들은 가장 낮은 하류층에 새로이 충원되기 시작한 집단이 된다. 거주지역도 한국인의 일반적인 거주지역과 분리되는 곳을 선택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을 만들어 인종적·민족적 게토(ghetto)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부가적으로 생겨난 외국인간의 범죄사건과 한국인에 대한 범죄도 종종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한편 외국인노동자들은 종종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노동관련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노동착취 문제와 인종적 차별을 받는 등으로 인한 인권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로 등장했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한국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될 당면 과제일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규명되어야할 다양한 측면을 지닌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외국인노동자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그동안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을 국적이나 한국 내 거주 지역 등으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온 측면이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은 중국의 조선족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멀리 아프리카에서까지 오고 있다. 이들은 출신국별로 상이한 인적자본과 정보망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 종사하고 있는 취업의 성격도 매우 다르다.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여러 나라 출신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정보가 섞여진 채 분석을 한다면 아무 집단의 성격도 보여

줄 수 없는 ‘평균’만이 얻어질 뿐이다. 반대로 어느 특정 국가 출신이 과잉 표집된 표본으로 전체를 설명하는 것도 그릇된 일반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석에 유의미한 규모가 되는 각 국가 출신별로 따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외국인노동자를 다루면서 국내에서의 현황, 적응 등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송출국에서의 문제는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동력의 국가간 이동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대개 송출국과 유입국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며 심지어는 국제분업의 시각이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연구동향은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지, 국내 노동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등과 같이 국내의 문제에만 치중해서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입국에서의 정보에 국한된 일면적인 시각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송출국에서의 정보도 최대한 이용하여야 한다.

이와 연결되어 추가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연구방법의 차원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학술연구의 대부분은 제2차 자료를 이용한 통계적 분석이거나, 질문지조사를 이용해 현황을 파악하거나 고충을 알아내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특히 질문지조사의 경우 제2차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만 알 수 없는 내용, 즉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을 이주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이 무엇인지, 이주를 위한 정보의 취득은 어디에서 구했는지, 어떤 경로로 한국에 도달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질문지조사 방법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조사에 국한되어 있어서 대상집단에 대한 모든 정보가 파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송출국에서 떠난 사람과 떠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노동력의 송출과 지역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송출국 내의 전지역에서 송출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특정지역에서만 일어나는지 등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송출국 현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때 기존 연구가 갖는 한계점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출신국별로 분류해서 외국인노동자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직업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영역’의 연구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을 망라하는 ‘사회영역’의 연구가 필요하며, 외국인노동자의 출신국에 대한 정보를 수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필리핀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로 한다.

## II. 국제노동력이동과 사회적 연결망: 이론적 쟁점

국제노동력이동은 일단 시작되면, 그 유발 요인이 소멸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개인 행위자는 특별한 양식으로 후속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쳐 국제노동력이동의 양상을 결정한다. 이동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면, 노동자의 '국제이동과 관련된 사회적 연결망'이 구조화되기 마련이다(Gross and Lindquist, 1995).

국제노동력이동의 사회적 연결망은 '노동력 송출국과 유입국에서 이주노동자와 선행이주노동자 및 비이주노동자를 혈연·지연·학연 등을 통하여 연결시키는 대인(對人) 연대의 집합'이다(Massey *et al.*, 1993: 448). 사회적 연결망이론은 '국제노동력이동이 지속됨에 따라 사람들은 연결망을 결성하고, 이 연결망은 이동비용과 위험을 낮추고 기대 순이익을 증가시키므로, 재차 국제노동력이동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본다(Massey and García España, 1987; Massey, 1990a, 1990b; Gurak and Caces, 1992).

첫째, 사회적 연결망은 이동비용을 감소시킨다. 최초로 국제노동력이동을 경험하는 사람은 의지할 만한 어떤 사회적 연결도 없는데, 특히 다른 나라에 미등록 노동자로 입국할 경우, 그들에게 이동비용은 매우 크다. 그렇지만 그가 일단 이동하게 되면 본국에 남은 친구·친척들의 잠재적 이동비용은 대폭 줄어든다. 이 사람들은 혈연관계·교우관계 등을 이용하여 노동력 유입국에 있는 사람들과 '사회적 연결'을 이루어 내기 때문이다. 즉 이주노동자는 필연적으로 비이주노동자들과 연결되고, 비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이동과정에서 도움을 얻기 위하여, 혈연관계·교우관계 등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력 송출국에서 연결망의 수가 일단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국제노동력이동은 자체영속적이 된다. 각 국제노동력이동이 그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회구조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매년 새로운 이주노동자는 자기 다음에 이동할 친구·친척의 이동비용을 감소시키는데, 그 중 일부가 이 연결망을 이용하여 이동하게 되며, 이는 다시 해외에 연결을 가진 사람을 확대시키고, 그 결과 다시 새로운 사람들의 이동비용을 낮춤으로써 그들 중 일부가 또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연결망은 이동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소시킨다. 연결망은 위험다각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국제노동력이동을 한층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 일단 이동의 연결망이 안정적으로 구성되면, 대부분의 공동체 성원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국제노동력이동을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취업방식으로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이동비용의 누진적 감소를 통해 발생한 자체유지적 연결망의 성장은 위험의 누진적 감소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이처럼 매년 새로운 이주자들이 연결망을 확대하고 이동위험을 감소시킴에 따라, 결

국 국제노동력이동을 통하여 가족 노동력 배분을 다각화하는 것은 이동비용과 위험이 수반되지 않는 매우 합리적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다.

사회적 연결망은 국제노동력이동의 가능성을 높이고, 추가이동을 야기하는데, 그 결과 연결망의 범위는 더욱 확대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송출국의 더 광범위한 계층이 국제노동력이동에 참여하게 된다. 즉 사회적 연결망이론은 국제노동력이동을 개인이나 가구에 의한 합리적 선택으로 보는 관점을 수용하면서, 특정 시기 발생한 국제노동력이동이 차후의 이동 결정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람이 이동을 선택할 가능성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연결망은 사람들이 국제노동력이동에 대한 접근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의 한 형태를 창출한다(설동훈 1996, 1999, 2000).

사회적 자본은 '특정 목적을 가진 행위를 위하여 접근·사용(또는 동원)될 수 있는, 사회구조 속에 자리매겨진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sup>1)</sup> 그것은 구조(embeddedness)와 행위(use or mobilization)를 매개하는 일종의 기회(accessibility)를 의미하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확보하는 인맥(人脈)으로 발현된다. 한 사람이 소유한 사회적 자본의 양은 그가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크기'와, 그 연결망에 접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문화적·상징적 자본의 양'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접촉이라는 행위를 하나의 투자로 보는 것으로, 연결망 속에 자리잡고(embedded) 있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 개념이 가지는 매력은 사회적 연결망의 변동뿐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즉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접근·사용·수익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상징적·정치적 자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사회적 자본을 창출할 수 있다. 이 말은 다음 두 가지 명제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어떤 사람이 가진 사회적 자본이 많을수록 그는 자기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 둘째, 어떤 사람이 가진 경제적·상징적·정치적 자원이 많을수록, '강한 연결'(strong tie)이 아닌 사람들과 관계를 자주 맺게 된다. 즉 사람들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많을수록 '약한 연결'(weak tie)을 많이 갖게 된다.

여기서 강한 연결과 약한 연결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약한 연결이란 강

1) 부르디외(Bourdieu 1986)와 콜만(Coleman 1988)은 사회적 자본을 '상호인정·상호인식을 위한 투자'로 파악하는 반면, 린(Lin 1982, 1990, 1999)과 마스덴(Marsden and Hurlbert 1988)은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투자'로 본다. 우리의 개념 정의는 후자에 가깝다.

한 연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지속기간, 낮은 밀도(intensity)와 친밀감, 적은 호혜적 행위(reciprocal service)를 가진다.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3, 1983, 1995)는 사람들이 자기와 친밀한 사람들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부터 얻은 정보에 주로 의존하여 직업을 구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약한 연결을 가진 사람이 한 연결망과 다른 연결망을 잇는 다리(bridge)로 기능함으로써, 두 연결망 사이의 '정보'와 '영향력'이 소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약한 연결 다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회 집단을 통해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와 자원에 대한 접근 통로"를 제공해준다고 강조한다(Granovetter, 1983). 그는 보스턴 근교의 미국인 전문기술직 종사자들의 경우 강한 연결보다는 약한 연결을 통해 유용한 구직 정보를 훨씬 빈번히 입수함을 입증하였다(Granovetter, 1995). 결국 그의 논지에 따르면, 소수의 '강한 연결'보다 다수의 '약한 연결'이 구직 과정에서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 즉 밀도가 높고 강도가 강한 연결망보다 밀도가 낮고 강도가 약한 연결망이 한층 더 이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린(Lin, 1982, 1990)도 사람들의 지위획득 과정에서 약한 연결이 사회집단들을 이어주고 여러 지위 위계를 다리 놓아주는 데 효율적이라고 강조한다. 사람들은 약한 연결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갖는 권력·부·위신을 동원하고, 그것을 자신의 지위획득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뉴욕주 북부지방의 노동자의 구직 패턴 연구를 통해, 사회적 위신이 높은 직종의 경우 강한 연결보다는 약한 연결이 더 중요하게 작용함을 밝혔다(Lin, Ensel and Vaughn, 1981).<sup>2)</sup>

한편 버트(Burt, 1992)는 사회적 자본을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구조적 공백이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결망들 사이에서 그 중심에 있는 사람과는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는 관계가 없는 상태를 지칭한다. 불완전 시장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단절된 관계 혹은 시장의 구조적 공백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을 알지 못한 채 방치되어, 한 가지 상품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을 맺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있으며, 다른

2) 그러나 일본 도쿄의 전문기술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와타나베(Watanabe 1987)의 연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고하였고, 미국 디트로이트 지역 표본자료를 분석한 마스덴과 허버트(Marsden and Hurlbert 1988)의 연구는 연결 강도와 접촉자의 사회적 지위간에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한편 비엔(Bian 1997)은 사람들의 연결 강도가 구직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원인을 연결 강도를 직접적 관계로만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찾는다. 그는 그라노베터와 린 등의 약한 연결 개념을 분해할 경우, '제3의 매개자를 통하는' 두 개의 강한 연결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간접적' 강한 연결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약한 연결 개념을 보완하였다.

사람들을 도와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교환에 의존하고 있다. 자산이란 '최적상태에 버금가는' 교환 속에 자리매겨져 있을 뿐이다. 이러한 교환구조 속에서는 개인이 접하는 위치가 자산이고, 사회적 자본이다.

구조적 공백이 있는 연결망에서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익을 얻는다. 물론 이때의 이익이란 다른 연결망과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인 것이다. 그는 연결망에서의 구조적 공백이 주는 두 가지 이익으로 정보와 통제의 이익을 언급한다. 구조적 공백이 많은 연결망에 속해 있는 사람은 구조적 자율성(structural autonomy)을 가지고 많은 정보와 통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반면, 구조의 공백이 적은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조적으로 구속되는 위치에 처하게 된다. 한 행위자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 구조적 공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는 경쟁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많은 사회적 자본, 다시 말해 높은 이익을 보장하는 연결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능한 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

버트의 구조적 공백 이론은 그라노베터의 '약한 연결' 이론과 유사하다. 그러나 동시에 버트와 그라노베터의 이론의 차이 역시 명백하다. 그라노베터는 사람들이 연결망 속에서 맺고 있는 관계의 강도(strength)를 강조하는 반면, 버트는 연결망 속에서의 구조적 공백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버트의 '구조적 공백' 이론은 국제노동력이동에서 브로커(broker)가 등장하는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연쇄이동이 이루어지는 각 결절(結節)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장은 불완전하며 인간의 합리성 역시 완전하지 못하고 제한된(bounded) 것에 불과하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자리잡고 생활하는 이상 그 사회의 구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즉 인간은 사회 속에 자리매겨진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국제노동력이동에 적용하면,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래 살던 사회와 이주하고자 하는 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망을 이용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정보를 입수하고 이동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제노동력이동의 시작과 지속 뿐 아니라, 유입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집단을 결성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도 '사회적 연결망'으로 설명할 수 있다. 포르테스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구조 속에서 성원자격 덕분에 회소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Portes, 1995: 15) 혹은 '개인의 경제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집합적 기대'(Portes and Sensenbrenner, 1993: 1326)로 정의한다. 그라노베터와 버트가 개방적 연결망을 강조하면서 '다리 역할을 하는 약한 연결' 혹은 '구조적 공백을 메워주는 연결'로서 사회적 자본을 개념화한다면, 포르테스는 이민자들의 폐쇄된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연결망을 중시한다. 그는 이민자들이 소수

민족집단거주지에서 생활함으로써 주류사회와 격리되는 부정적 효과도 있지만, 그 보다는 오히려 소수민족 성원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그들의 국내 적응이 한층 더 순조로울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외국인노동자는 소수민족 집단거주지의 자국민 끼리의 사회적 연결망을 사회적 자본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문화적 적응을 추구한다. 마이애미의 쿠바인들이나 로스앤젤레스의 한국인들처럼 소수민족집단거주지를 이루어 생활하는 이민자들은 현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가치의 주입, 제한적 연대, 호혜적 교환, 강제적 신뢰와 같은 네 가지 형태의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제노동력이동의 사회적 연결망이론은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명제를 제시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① 과거에 해외취업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이 적게 경험한 사람보다 국제노동력이동 가능성이 크다; ② 개인의 이동경험을 통제하였을 경우, 해외취업자와의 연결망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해외취업자와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이 먼 사람보다, 해외취업자가 합법 상태인 경우가 불법 상태인 경우보다, 해외취업자가 장기간 머무른 경우가 단기간 머무른 경우보다 국제노동력이동 가능성이 크다; ③ 사회적 연결망의 연계는 국제노동력이동이 국내노동력이동보다 훨씬 강력하다; ④ 가족 내 성원 중 어느 누구라도 해외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국제노동력이동 가능성이 크다; ⑤ 사회적 수준에서, 해외취업자가 많은 사회가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해외취업 역사가 오래된 사회가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국제노동력이동 가능성이 크고, 이주노동자의 사회계층이 다양하다” 등이다(Massey *et al.*, 1993: 460~461).

### III. 연구내용과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마석에 거주하는 필리핀인 노동자의 사회적 연결망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노동력이동의 과정과 현황 및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연결망을 중심으로 필리핀인의 국내 유입과 취업 및 귀환의 전과정을 조망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필리핀인 노동자들의 고향에서 현재의 직장이 있는 경기도 마석에 이르기까지의 국제노동력이동 경로를 추적한다. 또 현재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인 마석에서의 삶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도중 발생한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에 필리핀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 고찰할 것이며, 마석과 필리핀 사회의 상호작용의 패턴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자들은 경기도 마석의 필리핀인 노동자의 유입과 취업 및 귀환의 전과정에 걸친 자료를 질문지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분석하였다. 첫째, 1998년

7월 19일부터 8월 2일까지 15일간 경기도 마석 거주 필리핀 노동자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원으로는 필리핀인 노동자를 사용하였는데, 사 교회로부터 소개받은 필리핀인 노동자들에게 조사원 교육을 시켜 조사에 투입하였다. 교회의 자원봉사자들은 그곳의 필리핀인 규모가 200명 정도로 추정하였고, 본 조사는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표집된 인원은 123명이였다.<sup>3)</sup>

둘째, 1998년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필리핀을 방문하여, 한국에서 취업한 적이 있는 귀환노동자와 그 가족 및 이웃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으며, 동시에 학계 및 시민운동단체 종사자의 자문을 구하였다. 심층면접은 본 연구자들이 귀환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하여, 그들을 면접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필리핀 마닐라(Manila) 시의 남쪽에 위치한 바탄가스(Batangas)와 그 인근 지역 및 민도로(Mindoro)의 농촌 마을들을 방문하여, 경기도 마석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노동자 10명(남자 7명, 여자 3명)을 면접했다. 이들 중에는 두 쌍의 부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학력은 2명은 고졸, 1명은 4년제 대졸, 1명은 3년제 대졸, 나머지 여섯 명은 2년제 대졸이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 거주한 사람은 6년 거주자가 있고, 가장 짧게는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면접 기간은 1998년 8월 12일부터 16일까지였다. 면접 대상자는 마석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한 노동자를 기점으로 하여 전략적 제보자 표집법(strategic informant sampling)을 통해서 확보되었다. 면접은 본 연구자들과 면접대상자 및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합석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면접은 영어로 이루어졌는데 응답자들이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영어구사가 가능했으며, 자연스러운 분위기의 연출을 위해서 녹음은 하지 않았다. 면접시간은 다른 약속에 바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 소요되었다.<sup>4)</sup>

#### IV. 경기도 마석 필리핀인 집단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여러 외국인노동자 집단 중에서 필리핀 출신의 외국인노동자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경기도 마석에 형성된 외국인

- 
- 3) 수 차례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 소수로 추정되지만 응답을 거부한 사람들을 합치면 그곳에 거주하는 필리핀인의 수는 실제로 200명 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되며,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표본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 4) 표본추출의 출발점이 된 마석 거주 노동자의 부인이 모든 면접에 동참했으며, 이 부인도 마석에서 6년간 일한 경력이 있어서 응답자 전원과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매우 협조적인 면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노동자 집단거주지역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 1. 왜 필리핀 사람인가?

연구대상으로 필리핀 사람을 선정한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필리핀인은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세 가지 신분 각각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이다. 필리핀인은 예술홍행(E-6) 사증을 발급 받은 합법취업자, 산업연수(D-3) 사증을 발급 받은 산업기술연수생, 그리고 단기사증을 발급 받고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초과하였거나, 취업 사증을 받지 않고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 중인 미등록노동자 모두 존재한다. 국내 유흥업소에 출연하고 있는 ‘밤무대 가수’와 ‘댄서’가 합법취업자고, 공단지역에서 일하는 단순기능직 노동자들이 산업기술연수생과 미등록노동자들이다. 그 까닭은 ‘노동력’이 필리핀의 주요 수출 상품의 하나인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5)</sup>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필리핀인 노동자는 1990년대 초에는 국내 외국인노동자 중에서 중국 조선족을 제외하고는 최대 다수 집단을 형성하였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실시하며, 인력 수입국을 다 변화하면서 그 상대적 비중은 저하되었으나, 여전히 그 비중은 높은 편이다. 1998년 기준으로 필리핀인 노동자는 산업기술연수생 중에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집단이며, 미등록노동자 중에서는 중국과 방글라데시에 이어 세 번째 다수 집단이다.<sup>6)</sup>

둘째, 필리핀인은 자국인 공동체를 형성하여 한국 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는 집단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한국의 각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도 지역별로 종교적인 유대를 가지며,<sup>7)</sup> 지역별 그리고 지역간의 운동경기를 갖는 등 다른 나라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들 보다 비교적 조직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본 연구자들이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구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

5) 약 645만 명의 필리핀인이 해외에서 선원, 목수, 석공, 기계공, 가정부 등 계약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말레이시아·일본·홍콩·아랍에미리트·대만·싱가포르·쿠웨이트에 이어 아홉 번째 필리핀 노동력 유입국이다(Böhning 1998:343). 노동력 수출은 필리핀의 중요한 외화 획득 원천으로 간주된다. 필리핀의 경우 해외 취업자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1980년대 말 기준으로 약 30~50억 달러에 달하였다(McMichael 1996:188). 해외 취업 필리핀의 송금액은 당시 필리핀 수출액의 50%, 필리핀 국가 예산의 10%에 달하는 것이었다.

6) 1998년 경제 위기로 필리핀인 미등록노동자의 귀환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규모는 방글라데시에 이어 3위로 하락하였다. 방글라데시보다 필리핀인의 귀환이 더 많았던 것은 두 나라의 경제발전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7) 그들은 매주 일요일 전국 각지의 성당에서 영어 또는 타갈로그(Tagalog)로 미사(mass)를 본다. 카톨릭 교회는 그들의 중요한 사회적 자본의 원천으로 기능한다.

〈표 1〉 국내 외국인노동자 중에서 필리핀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 1991-1998년

연도	합법취업자			산업기술연수생			미등록노동자		
	전체	필리핀	비율(%)	전체	필리핀	비율(%)	전체	필리핀	비율(%)
1991	2,973	285	9.6	599	165	27.5	41,877	15,745	37.6
1992	3,395	355	10.5	4,945	937	18.9	65,528	12,946	19.8
1993	3,767	355	9.4	8,048	1,776	22.1	58,605	10,302	17.6
1994	5,265	474	9.0	24,050	4,844	20.1	48,231	7,614	15.9
1995	8,228	532	6.5	42,716	7,982	18.7	83,104	10,327	12.4
1996	13,420	598	4.5	68,020	9,270	13.6	129,054	14,602	11.3
1997	14,655	940	6.4	103,598	12,356	11.9	148,048	13,909	9.4
1998	11,143	995	8.9	74,135	6,632	8.9	99,537	6,404	6.4

주: 각 연도 12월 31일 기준임. 단, 1992년은 7월 31일 기준임(실동훈 1999 참조).  
 자료: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각 연도.

을 선택한 측면도 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심층면접과 본국까지의 추적 조사를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구사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필리핀인은 타갈로그와 영어를 상용어(常用語)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sup>8)</sup> 의사소통 장벽을 쉽게 허물 수 있는 집단이다. 물론 그들 중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도 많지만, 그들의 미묘한 정서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왜 경기도 마석인가?

외국인노동자는 전국의 공단, 건설현장, 광산, 어장에서 일하고 있다.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된 경기도 마석에는 대규모 가구공단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수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곳은 원래 나병환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던 동네였으며 지금도 50가구 이상이 살고 있다. 동네의 성격상 땅값이 싸고 개발이 되

8) 필리핀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종족이 섞여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사용 언어도 100개를 훨씬 초과한다. 필리핀 국립박물관이 정리한 언어지도에 의하면, 중국인과 스페인인 등을 제외한 필리핀 선주민(先住民) 종족은 언어적으로 126개인데, 방언까지 합치면 186개로 늘어난다. 그 중 중심이 되는 언어는 타갈로그(Tagalog)와 그와 아주 유사한 비사야(Visaya)다. 타갈로그는 1937년에 필리핀의 국어로, 1946년에는 공용어(共用語)로 지정되어 그 후 현재까지 필리핀어로 불리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필리핀 정부는 타갈로그와 함께 영어를 상용어로 공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도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다. 예컨대 초등학교에서 수학과 과학 교과목은 영어로 교육하며, 텔레비전 쇼 프로그램에서도 타갈로그와 영어를 번갈아 사용하고 있다. 필리핀인의 이중 언어 구사능력은 그들의 중요한 인적자본으로 간주된다.

지 않아서 방치되어 오다가 하나씩 생겨난 가구공장들이 이제는 대규모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 공장들은 대부분 ‘무허가공장’이었기 때문에, 한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기가 어려웠다. 낮은 임금, 힘든 노동, 위험한 작업환경 등 전형적인 노동혹사공장(sweatshop)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 공장들이 찾은 대안은 외국인 미등록노동자였다. 일자리와 싼 거주비용을 찾는 외국인 미등록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들면서, 이곳은 한국 언론에 의하여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의 해방구’로 불리게 되었다. 본 연구자들이 현지조사를 한 1998년 7~8월에 이곳 외국인노동자의 주축은 필리핀인이었다. 당시 이곳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중국인(조선족이 아님)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 출신의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취업중이지만, 이들의 수를 모두 합해도 필리핀 출신 노동자 수에 못 미치며 또 필리핀 노동자들처럼 공동체의 틀을 갖춘 거주지역과 생활공간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sup>9)</sup>

더욱이 마석 필리핀인 노동자들은 자치 단체를 만들어서 스스로 집회도 갖고 상호부조를 주기 위한 노력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적 생활의 중심점은 예배를 위해 일요일마다 모이는 개신교단 소속의 ‘S교회’라고 볼 수 있다.<sup>10)</sup> 평일에는 서로 만나기조차 어렵지만 일요일에는 모두 모여서 예배도 보고, 놀이도 하며, 취업에 대한 정보도 교환한다. S교회의 이○○신부는 필리핀노동자들이 마석에 처음 정착할 때부터 도움을 주기 시작하여 지금은 이들의 대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sup>11)</sup>

### 3. 경기도 마석의 필리핀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경기도 마석에서 일하며 살고 있는 필리핀인 노동자는 약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에서 본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은 123명이었다. 1998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필리핀인 미등록노동자 수가 6,404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1.9% 표본인 셈이다. 그러나 마석 거주 필리핀인을 표본모집단으로 삼으면

- 
- 9) 조사 당시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은 경기도 마석과 그 인접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출신국 분포를 대략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필리핀 200명, 방글라데시 150명, 나이지리아 30명, 카메룬 11명, 네팔 10명, 몽골 7명, 중국 4명, 파키스탄 2명.
  - 10) 경기도 마석 필리핀인 공동체는 천주교가 아니라 개신교 교단 소속인 S교회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특별한 관심 대상이 된다.
  - 11) 채불임금을 받아주는 역할, 부당 노동행위를 고발해주는 역할, 불법체류자격 때문에 끼리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관련 행정을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종교인으로서의 역할 등으로 이○○신부는 필리핀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61.5% 표본이다. <표 2>는 이 표본집단의 성격을 설동훈(1999)의 1995년 국내 외국인노동자 조사 결과와 함께 비교·제시하고 있다.

<표 2> 마석 거주 필리핀인 노동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998년

구 분	1998년 마석 조사	1995년 수도권·부산 조사				
		전체	산업기술연수생		미등록노동자	
			한국계	비한국계	한국계	비한국계
남성 (%)	53.7	71.8	66.7	63.1	59.6	84.9
평균 연령 (세)	33.8	32.0	27.2	26.6	43.2	29.9
기혼자 (%)	59.8	47.9	56.7	25.8	80.8	42.0
평균 식구 수 (명)	6.0	6.2	3.9	6.8	4.4	7.2
평균 교육년수 (년)	11.4	10.8	9.7	11.7	10.5	10.6
본국 거주지가 도시 (%)	70.0	56.3	53.3	59.3	74.0	45.2
본국에서 한국인과 일한 경험 (%)	9.7	13.9	10.0	23.6	15.5	8.4
제3국 취업 경험 (%)	47.7	13.3	3.3	14.5	5.6	17.8
사례수	123	424	25	116	101	182

마석 필리핀인은 남녀의 비율이 엇비슷한데,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다. 외국인노동자 집단 전체와 비교하면, 필리핀인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평균 연령은 33.8세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들 중 59.8%는 기혼자다. 그들이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닌 평균 햇수는 11.4년으로,<sup>12)</sup> 중등학교 졸업 이상 전문대학 재학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필리핀인의 학력 수준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편이다. 그들은 탁월한 영어 구사 능력과 함께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가로부터 선호되고 있다(나영선, 1997). 본국의 평균 식구 수는 6.0명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다. 국내 외국인노동자들의 출신국이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출산 사회라는 점을 반영한다. 특히 필리핀은 국민의 대다수가 신봉하는 카톨릭이 다출산을 장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통적 가족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마석 거주 필리핀인의 70.0%는 도시 출신이고, 나머지 30.0%는 농촌 출신이다. 또 <표 3>에 제시한 것처럼 그들은 필리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 출신이 다수를 점하고, 해외 인력 진출의 역사가 긴 일로코스 지방 출신이 많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

12) 필리핀의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4년, 전문대학 2년, 대학 4년이 기본이다. 한국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단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7세다.

〈표 3〉 출신지역, 1998년

(단위: %)

지역	1998년	1978년	지역	1998년	1978년
전체 (N)	116	18,140	비콜	5.2	0.7
일로코스	22.4	8.2	알바이	1.7	0.3
아브라	1.7	0.1	카마리네스 북부	0.9	0.1
벤구엣	3.4	0.3	카마리네스 남부	-	0.2
일로코스 북부	4.3	0.4	카탄두아네스	-	0.0
일로코스 남부	2.6	0.7	마스바테	-	0.0
라 유니온	4.3	1.1	소르소곤	2.6	0.1
마운틴 프로빈스	-	0.5	서부 비자야스	4.3	2.1
광가시안	6.0	5.0	아콜안	0.9	0.0
카가얀 밸리	5.2	0.8	안틱	-	0.0
바타네스	0.9	0.0	카피스	0.9	0.1
카가얀	0.9	0.3	일로일로	1.7	0.8
이푸가오	0.9	0.0	네그로스 서부	0.9	1.1
칼린가-아파야오	-	0.2	중부 비자야스	1.7	1.2
이사벨라	0.9	0.1	보홀	0.9	0.1
누에바 비스카야	1.7	0.1	세부	0.9	0.9
중부 루손	15.5	23.3	네그로스 동부	-	0.2
바타안	0.9	2.4	동부 비자야스	2.6	0.3
볼라칸	5.2	2.3	레이테	2.6	0.2
누에바 에키하	2.6	0.8	남부 레이테	-	0.0
팜판가	0.9	12.4	동부 사마르	-	0.0
타르락	3.4	1.4	서부 사마르	-	0.0
잠발레스	2.6	4.1	서부 민다나오	0.9	0.2
남부 루손	35.3	60.7	술루	0.9	0.0
바탄가스	5.2	3.6	잠보안가 북부	-	0.1
카비테	3.4	9.1	잠보안가 남부	-	0.1
라구나	5.2	2.8	동북부 민다나오	3.4	1.3
마린두케	1.7	0.1	아구산 북부	-	0.2
메트로 마닐라	9.5	34.5	아구산 남부	0.9	0.1
서부 민도로	0.9	0.1	부키드논	1.7	0.1
동부 민도로	2.6	0.2	라나오 북부	-	0.1
팔라완	-	0.1	라나오 남부	-	0.0
케손	4.3	1.0	미사미스 서부	-	0.1
리살	0.9	9.3	미사미스 동부	0.9	0.4
롤랄론	1.7	0.0	수리가오 북부	-	0.1
비콜	5.2	0.7	수리가오 남부	-	0.2
알바이	1.7	0.3	동남부 민다나오	3.4	1.2
카마리네스 북부	0.9	0.1	코타바토	2.6	0.1
카마리네스 남부	-	0.2	남부 코타바토	0.9	0.4
카탄두아네스	-	0.0	다바오 북부	-	0.0
마스바테	-	0.0	다바오 남부	-	0.6
소르소곤	2.6	0.1	다바오 동부	-	0.1

주: 비콜을 위해 1978년 필리핀의 해외취업자 분포(Arcinas 1986:270)를 함께 제시하였다.

러나 유효 응답자 116명의 출신지가 필리핀 전국을 거의 망라하고 있다는 사실은 본 연구의 놀라운 발견이다.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노동자를 해외로 보내온 나라여서 지역이나 도시, 농촌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외국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 있는 편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 출신들과 비교해볼 때 필리핀인들은 한국에 진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카톨릭이라는 이점이 있어서 천주교회를 통해서 각종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 특히 수도권 필리핀인들에게 중요한 정보 흐름의 역할을 하는 혜화동 천주교회는 매주 일요일 저녁 미사에 필리핀인 신부를 사교회로 보내는 등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으며, 따라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필리핀인들 사이에는 마석에 관한 정보가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 마석 거주 필리핀인 중 9.7%는 필리핀에서 이미 한국인과 같이 일한 경험이 있으며, 47.7%는 과거 제3국에서 취업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필리핀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로 인력을 송출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그들의 필리핀에서의 직업은 기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 하층 블루칼라의 비율이 낮다(김종일·이상철·이종구·설동훈, 1995). 물론, 필리핀에서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였던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아버지의 직업을 살펴보면 80.4%가 상층 블루칼라 이상이다(표 4). 본 조사의 응답자들이 젊은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필리핀에서 실업자였던 사람들도 궁핍에 찌든 하층민이 아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 마디로 그들은 필리핀의 중산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표 4〉 본국에서의 직업과 아버지 직업, 1998년

(단위: %)

직업	본인 직업	아버지 직업
상층 화이트칼라	34.7	48.0
하층 화이트칼라	9.3	17.6
상층 블루칼라	11.0	14.7
하층 블루칼라	4.2	19.6
실업자	37.3	-
비경제활동인구	3.4	-
계	100.0	100.0
(N)	(118)	(102)

끝으로 마석 필리핀인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교회가 개신교단 소속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종교를 조사해보았다. 카톨릭이 66.7%로 가장 다수이고, 다음이 이슬람교 17.9%, 기독교 13.8%, 기타 1.6%였다.<sup>13)</sup> 이슬람교 신자는 필리핀 남

부인 민다나오 출신이 주류인데, 그들 역시 사회회를 기반으로 한 필리핀인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sup>14)</sup>

## V. 이주와 적응의 연결망

### 1. 이주의 연결망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일하러 갈 때 자기가 아는 사람을 탐색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연쇄이동(chain migration)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제공한다. 여기서 필리핀인 노동자의 이주와 구직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라노베타(Granovetter, 1973, 1983, 1995)와 린(Lin, 1982, 1990, 1999) 등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강도를 기준으로 '강한 연결'과 '약한 연결'을 구분하고, 약한 연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밝혔다. 우리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강한 연결에 해당되는 범주로 '가족'과 '친족', 약한 연결에 해당되는 범주로 '친구'와 '아는 사람'을 설정하였다(Lin and Dumin, 1986 참조). 또 약한 연결의 범주로 해외취업 브로커를 추가하였다. '친구'나 '아는 사람'이 아닌 브로커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그들이 입국할 때 한국에 아는 사람이 누가 살고 있었는가를 질문하였다. 경기도 마석의 필리핀인들은 자기가 입국할 때 이미 한국에 가족(9.3%), 친척(10.2%), 친구(62.0%) 또는 아는 사람(4.6%)이 살고 있었다. 아는 사람이 전혀 없이 브로커에만 의존하여 입국한 경우는 21.3%에 불과하다. 한국에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이 그들의 한국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에 많은 친구나 친척, 가족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은 한국에 필리핀 노동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지 10여 년 이상이 경과한 점과 관련이 있다.<sup>15)</sup> 이주 희망자의 취업 대상국에 대한 정보의 확보 여부는 이동지를 최종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구나 필리핀에서 한국으로의 공식적·합법적 이동 경로는

13) 필리핀의 종교별 인구구성 비율은 카톨릭이 전국민의 85.0%, 기독교가 9.0%, 이슬람교가 4.3%, 기타 1.7%이다. 즉 거의 모든 필리핀인이 종교를 갖고 있다.

14) 이점에서 사회회의 이○○신부의 역할이 다시 한번 부각된다. 외국인 이교도들까지 "사랑으로 감싸안은" 그의 헌신적 자세가 필리핀인들의 결속에 밑거름이 되었다.

15) 경기도 마석 필리핀인들 중에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머무른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입국 시기는 1990년 1.6%, 1991년 9.8%, 1992년 9.8%, 1993년 7.3%, 1994년 16.3%, 1995년 16.3%, 1996년 12.2%, 1997년 25.2%, 1998년 1.6%였다. 산업기술연수생은 최장 2년 내지 3년의 체류기간 제한이 있으나, 그들은 대부분 사증 유효기간을 훨씬 초과한 미등록노동자이다.

매우 제한되어 있고 접근도 용이하지 않다. 실제로 응답자 중에서 16.3%만이 산업연수 사증을 받아서 한국에 왔으며, 나머지는 모두 관광 사증을 받아 입국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이동을 경험한 후에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비용과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같은 지역으로의 연쇄이동이 일어나게 된다. 정보를 둘러싼 사회적 연결망은 국제노동력이동의 가능성을 높이고, 추가이동을 야기하여 연결망의 범위는 더욱 확대된다. 국제노동력이동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연결망의 이식’(transplanted networks)이 이루어진 것이다.

M씨(남, 25세)의 경우는 1991년에 한국을 다녀간 친 형 N씨(30세)의 정보를 이용해서 1996년에 한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으며, 사촌인 R씨(남, 26세), T씨(남, 26세), 그리고 아직도 한국에 있는 L씨(남, 30세)도 같은 연결망을 이용해서 한국에 왔다. 더구나 이들은 첫 이동자였던 N씨의 고용주였던 ‘이씨’의 소개로 한국에서의 첫 직장을 잡게 되었다. 이들이 다른 나라를 두고 한국을 택한 이유는 N씨를 통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R씨의 경우도 먼저 가 있는 상태에서 부인과 동생 둘을 한국으로 불러왔다.

내가 한국에 가는 길을 잘 알기 때문에 마누라와 내 동생들도 한국에 데려 갔다. 학교를 마치고 마땅한 직업이 없던 동생들을 부르느라고 돈이 제법 많이 들었지만, 가족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R씨, 남, 35세).

이식된 연결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들의 한국 취업에 주된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였는가를 질문하였다.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그들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친구(44.4%)를 꼽으며, 다음으로는 자기 자신(29.9%)과 브로커(12.0%)를 선택한다. 또 그들은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브로커(55.3%)와 가족·친척(27.1%) 및 친구(10.6%)를 지적한다. 그라노베터의 ‘약한 연결’에 해당하는 친구와 브로커의 역할이 큼이 입증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필리핀에 있을 때 한국 취업 정보를 누구를 통해 입수하였는가를 살펴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중요한 정보원을 두 개씩 선택하라고 하였는데, 그것의 합계 분포를 보면, 그들은 친구(63.9%), 브로커(59.2%), 친척(31.8%), 가족(21.6%)에 주로 의존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 취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막대한 취업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오는데는 대개 미화 2,000달러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sup>16)</sup> 필리핀의 경제 사정으로 볼 때 이 돈은 엄청나게 큰 돈에 해당된

16) 본 조사의 유효 응답자 114명은 평균 미화 2,107달러를 지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가장 적게 든 사람의 입국비용은 비행기 값 정도에 불과한 400달러였고, 가장 많이 든 사람은 브로커 수수료

〈표 5〉 이주와 취업 과정에서 도움받은 사람들

(단위: %)

한국 취업에 영향 미친 사람				한국 노동시장 정보 원천				구직시 도움받은 사람		
구 분	첫째	둘째	합계	구 분	첫째	둘째	합계	구 분	초직	현직
나	29.9	2.4	32.3					없다(나)	0.8	4.1
가족·친척	6.8	27.1	33.9	가족	23.1	3.6	26.7	가족	25.4	4.1
				친척	6.8	25.0	31.8	친척	3.4	19.2
친구	44.4	10.6	55.0	친구	49.6	14.3	63.9	친구	40.7	42.5
아는 사람	6.0	4.7	10.7	아는 사람	4.3	6.0	10.3	아는 사람	-	1.4
브로커	12.0	55.3	67.3	브로커	12.8	46.4	59.2	인력송출업자	7.6	1.4
								브로커	22.0	27.4
기타	0.9	-	0.9	책	0.9	1.2	2.1			
				광고	0.9	1.2	2.1			
				기타	1.7	2.4	4.1			
계 (N)	100.0 (117)	100.0 (85)	200.0	계	100.0 (117)	100.0 (84)	200.0	계	100.0 (118)	100.0 (73)

주: 반올림으로 인해 계가 100.0 또는 200.0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본 연구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를 질문하였다. 돈은 그 자체로는 물질 자본이지만, 그것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은 그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신용’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들은 취업비용을 부모(38.7%)에게서 얻거나, 자기가 친구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차입하고(21.8%), 재산을 매각하며(19.3%), 저축한 돈을 이용하여(17.6%) 마련한다. 처가 또는 시댁 식구(6.7%), 형제자매(5.0%), 기타 친척(3.4%), 배우자(2.5%)의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다.

필리핀 사회는 친족 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는 확대가족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 1995년 현재 총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이 4명에 가까우며, 현재 노동을 하러 외국으로 가는 주연령층이 태어나던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의 총출산율은 6명에 가까웠으므로 친족의 규모가 매우 크다. 친척 중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가 돕는 것이 매우 당연시되는 사회이므로, 외국으로 일하러 가야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가 돕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므로 돈을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존재 여부는 노동력의 이동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 마디로 말해, 한국에 올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를 포함하여 5,000달러였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 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은 해외취업 대열에서 탈락하고 만다.

취업 비용은 50,000페소(당시 환율로 미화 2,000달러)였는데, 나는 그 돈을 할머니에게서 빌릴 수 있었다. 그 돈은 할아버지가 군에서 정년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였다. 내 친구는 그 돈을 구할 수 없었기에 한국 취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 외국으로 일하러 가지 않는 사람들은 필리핀에서 좋은 직업이 있거나 아니면 가는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V씨, 여, 25세).

한국에 간 때는 1997년 6월이었는데, 한국의 경제가 나빠지고 일자리가 없어서 1998년 4월에 돌아왔다. 갈 때 브로커 비용 2,200달러를 포함해서 총 3,000달러가 들었으며 연수 사증을 받았다. [……] 비용의 절반인 1,500달러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1,500달러는 친구, 친척, 가족들로부터 꾸었다(R씨, 남, 26세).

졸업 후에 직장을 찾지 못해서 놀고 있다가 숙모네 옆집에 사는 검사(檢事)가 한국으로 돈 벌러 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한 사촌에게서 미화 2,500달러(당시 45,000페소)를 빌려서 지불을 하고 1991년 12월 9일에 한국으로 갔다(R씨, 남, 34세).

한국 취업의 성사 여부는 어떤 사람의 학력, 기능수준, 직업경력과 같은 인적자본에 의하기보다는 취업비용(물적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즉 사회적 자본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을 선택하게 된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 중에서 특정 나라로 일하러 가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외국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나라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만나는가 하는 점이다. 또 어떤 나라에 가족이 미리 가 있고 그곳에서 일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되면 브로커 없이도 갈 수 있다. 모두 외국에 가고 싶어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간다. 홍콩이나 대만에 가려면 60,000~70,000페소가 든다고 하는데, 한국 행은 브로커 비용이 덜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브로커 없이는 가기가 힘들며, 고국을 방문하기도 어렵다(M씨, 여, 초등학교교사).

상당수의 필리핀인들은 한국에 오기 위하여 각종 브로커의 도움을 받고 있다(표 6). 그 비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자들은 그들에게 인력송출조직을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51.3%가 인력송출조직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그 조직의 과반수는 공적인 것(50.8%)이고 나머지 과반수는 사적 브

로커(49.2%)다. 또 그 조직은 대부분(84.7%) 합법적으로 인가를 받은 것이며,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조직은 15.3%에 불과하다. 그들이 지불한 브로커 비용은 평균 1,502달러이다.

〈표 6〉 브로커 이용 여부와 비용

인력송출조직 이용(%)	51.3	인력송출조직 비용(%)	48.7
공적 조직(%)	50.8	가족(%)	10.3
사적 브로커	49.2	친척	31.0
		친구	32.8
		아는 사람	25.9
공인(%)	84.7	비용 지불(%)	66.0
비공인	15.3	무료	34.0
평균 브로커비(달러)	1,502	평균 사례비(달러)	1,431

브로커의 도움을 받지 않은 나머지 48.7%는 어떻게 한국에 들어왔을까? 그들은 친구(32.8%), 친척(31.0%), 아는 사람(25.9%)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제노동력이동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행하기 힘든 것이기에 이 사람들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친구, 아는 사람, 또는 친척이라도 수수료(commission)를 받았다면 그는 사실상 브로커와 다름없게 된다. 브로커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람 중 66.0%는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머지 34.0%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대답하였다.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은 평균 1,431달러를 지출하였다. 이는 앞서 밝힌 브로커비용보다 71달러밖에 적지 않다. 즉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활동의 대가로서의 '수임료'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그들은 직업적 브로커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브로커를 이용한 사람의 비율을 재계산하면  $51.3 + (48.7 \times 0.66) = 83.4\%$ 에 이른다. 물론 이것은 최소한의 사례비도 브로커 수수료로 간주한 것이므로 최대 추정치로 볼 수 있다.

경기도 마석 필리핀인 중 85.4%는 한국에 처음 일하러 왔지만, 12.4%는 두 번째 취업이며, 0.8%는 세 번째 취업이라고 응답하였다. 우리는 그들의 입국 횟수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는 불법체류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중에 규정된 체류기간 내에 미등록노동자가 출국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을 떠날 때 정부 전산망에 불법체류 사실이 기록되게 된다. 이러한 기록은 적어도 몇 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에 다시 입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13%는 다시 한국에 일하러 온 것이다. 그 비결은 브로커의 역

할에서 찾을 수 있다. 일부 브로커는 여권 위조를 서슴지 않는다. 한국 정부에 ‘불법체류 우려 외국인’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사진이 부착된 타인 명의의 여권을 브로커를 통해 구한 다음, 현지의 한국대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필리핀 마닐라, 중국 베이징·연변 등 한국 취업 희망자가 쇄도하고 있는 곳에서는, 수많은 브로커가 이러한 일을 대행하고 있다.

나는 한국에 세 번 일하러 갔다 왔다. 물론 세 번 모두 관광 비자를 발급 받았다. 처음에 한국에 간 것은 1991년 초다. 내 친구 중 선원으로 일하는 녀석이 한국에 일자리가 많다는 말을 해주었다. 마닐라에서 만난 한 중개인(agency)을 통해 한국에 일하러 갈 수 있는 길을 아는 브로커를 만났다. 그 때는 무사증입국(no visa entry)이 가능했다. 브로커는 여권에 도장 받는 수고비와 한국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보일 쇼머니(show money) 등의 사유로 1,000달러를 요구했다. 나는 그 돈을 사촌에게 빌렸다. 그 이자는 100일에 10%에 달하는 것으로 매우 높았다. 나는 그 돈을 귀국하는 친구를 통해 송금하여 곧 갚았다. 친구에게 수고료와 교통비 조로 50달러를 주었다. 한편 나는 한국에서 곧바로 직장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한국인 브로커에게 250달러를 주고 직장을 구했다. 이렇게 1년 6개월을 일하다 필리핀에 귀국하였다. 한국에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한 번 불법체류자로 낙인이 찍히면 입국 자체가 거부당하니 불법적 방법을 동원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이 찍힌 여권에 내 사진을 붙이는 방법이다. 마닐라에는 이런 일을 해주는 브로커가 여럿 있다. 여권을 구한 다음 수속은 내가 직접 했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R씨, 남, 35세).

산업기술연수생은 이주 비용에 취업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취직 걱정 없이 한국에 온다. 그러나 관광 사증을 가진 미등록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여야 하는데, 그 때 동원하는 것이 사회적 연결망이다. <표 5>에는 구직시 도움 받은 사람의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필리핀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첫 직장을 구할 때는 친구나 가족 및 브로커의 도움을 주로 받는다. 이 때 이용하는 브로커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로, 필리핀의 브로커(인력송출업자)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한국에서 어느 정도 머무른 후에 직장을 구하는 방법은 약간 변화된다. 가족의 의존도가 감소하고, 친구나 친척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증가하고, 자기 자신이 직접 구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그렇지만 브로커를 이용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다. 그것은 국내에 외국인노동자의 취업을 알선하는 사람들이 조직화되어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이 브로커를 소개받는 것은 대부분 친구를 통한다. 즉 그들은 한국에 온 후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로 옮길 것인가 하는 정보도 친구나 친척에 의존한다.

산업기술연수 사증을 발급 받아 한국에 가서 일하게 된 곳은 대구였다. 대구의 한 섬유공장에서 나는 직조기계를 조작하는 일을 맡았다. 그 일은 비교적 편찮은 일이었으나, 작업시간이 밤 8시에 시작해서 아침 8시에 끝나는 야간조였다. 장시간 노동에 이력이 난 나였지만, 밤잠 자지 않고 일하는 12시간은 매우 힘들었다. 그 때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한 여자 친구로부터 공장을 탈출하자는 제안을 들었다. 그 친구의 남편은 서울에서 미등록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봐 두었고, 우리는 대구의 섬유공장을 몰래 나와 서울로 향하였다(V씨, 여, 25세).

한국에서 처음 일한 곳은 면목동에 있는 한 공장이었는데 거기서 가죽잠바 만드는 일을 했다. 그 공장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일했고 월급은 3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마석으로 옮기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친구로부터 듣고 당장 옮겼다(R씨, 남, 34세).

## 2. 적응의 연결망: 친구관계

경기도 마석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리적으로 좁은 지역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밀집해 있고 비교적 일찍 외국인 정착촌이 형성된 곳이다. 따라서 필리핀인 노동자들은 공장과 집 근처에서 쉽게 본국 출신의 다른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고, 영어로 미사를 보는 교회가 가까이 있어 종교행사 개척가 용이하며, 필리핀인들의 수가 많아 필리핀 문화를 느낄 수 있고, 필리핀 상품까지 구입할 수 있다.

필리핀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적응하며 사는 데는 친구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에 살게 되면서 그들은 필리핀인뿐 아니라 한국인과 기타 외국인노동자를 친구로 사귈다. 친구관계는 호혜성(reciprocity)의 원리가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그들은 서로 부재시 집을 봐주고, 긴급자금(急錢)을 빌리며, 목돈을 빌리기도 하고, 일에 관해 의논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의 자문을 구하거나, 취미·여가활용을 이야기하고, 서로 방문 또는 교체하며, 집안 일을 도와주고, 개인적 문제를 의논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러한 관계는 주로 필리핀인 노동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 <표 7>을 보면, 기타 외국인 친구의 경우 취미·여가활용을 이야기하거나 일에 관해 의논하는 정도에 국한되고, 한국인 친구의 경우 상호 방문이나 교체를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친구들끼리의 친밀성 정도는 만나는 빈도로도 측정할 수 있다. 이 척도를 통해 보더라도, '진정한 친구'는 필리핀인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어려울 때의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는 격언에 비추어 볼 때 '진정한 친구'는 국적의 경계를 넘기 힘든 것이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 때문에 국적을 뛰어 넘는 친구관계는 그다지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

〈표 7〉 친구의 국적별 사회적 관계

구 분	필리핀인	기타 외국인	한국인
다음과 같은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는가?	(103)	(103)	(103)
부채시 집을 봐준다	80.6	1.0	2.9
긴급자금을 대출한다	50.5	2.9	1.9
돈을 빌린다	49.5	5.8	4.9
일에 관하여 의논한다	37.9	7.8	3.9
중요한 의사결정의 자문을 구한다	22.3	5.8	3.9
취미·여가활동을 이야기한다	21.4	11.7	1.0
방문 또는 교체한다	18.4	6.8	9.7
집안일을 도와준다	15.5	4.9	1.9
개인적 문제를 의논한다	14.6	4.9	6.8
얼마나 자주 친구를 만나는가?	(115)	(28)	(26)
거의 매일	90.4	14.3	34.6
매주 한 번 이상	5.2	39.3	19.2
매주 한 번 정도	1.7	17.9	19.2
한 달에 두세 번	1.7	3.6	7.7
한 달에 한 번 정도	0.9	17.9	11.5
일 년에 몇 번	-	3.6	-
일 년에 한 번 정도	-	-	3.8
일 년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렵다	-	3.6	3.8
친구 수(N)	(105)	(107)	(107)
평균(명)	8.99	4.29	5.08
직장 동료 수(N)	(121)	(121)	(121)
평균(명)	4.36	2.31	5.71

이러한 사실은 경기도 마석이 가지는 공간적 특성 과도 관련이 있다. 민족적 또는 인종적 계도가 늘 그러하듯이 마석에 거주하는 필리핀인 노동자들은 자신들끼리의 접촉 빈도와 강도가 높은 만큼 다수민인 한국인과의 접촉이 적으며, 계도 내부에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바깥에 나가는 회수가 적고, 따라서 외부사회로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크다.<sup>17)</sup> 어쨌든 필리핀인 노동자들 사이에 의지하고 기댈 곳은 동포들밖에 없다는 생각이 확산되었고, 바로 이러한 요인 때문에 필리핀인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스코

17) 계도가 형성되지 않은 다른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종교행사를 위해서나 친목을 위해서 다른 곳(시내)으로 나들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편이다. 마석은 계도 외부로의 나들이가 적다는 점 때문에 마석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도박에 빠져드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더 많다.

회가 모임의 장소가 된 것이며, R씨(남, 34세) 등 모임의 조직화에 힘쓴 사람들의 노력이 접착제 역할을 한 것이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친구관계는 정보의 소통 통로로 기능 한다. 최소한의 친밀한 관계만 만들어지면 정보는 쉽사리 유통되므로, 친구의 수 역시 중요하다. 그들은 필리핀인 친구를 평균 8.99명, 한국인 친구를 5.08명, 기타 외국인 친구를 4.29명 갖고 있다. 특히 그들 중 한국에 머무른 지 꽤 오래된 사람들은 한국 말을 잘 구사하며, 수도 많아서 자기들끼리 노동시장 정보를 교환한다. 특히 그들은 직장을 옮기기 위하여 일자리 정보를 수집할 때는 별로 친하지 않은 한국인이거나 기타 외국인 친구로부터 유용한 도움을 얻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한편, 그들의 친구 수가 직장 동료 수보다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삶을 시간으로 구분하면,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과 개인적 자유시간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친구관계는 직장생활의 경계를 쉽사리 뛰어 넘는다. 말하자면 그들은 경기도 마석이라는 공간에서 지방적 삶을 영위하는데, 여기서 중심이 되는 역할을 사교회가 제공하는 것이다.

마석의 필리핀인들 중 67.9%는 필리핀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하며, 34.0%는 사교회 등 필리핀인 교회에 소속감을 갖고 있으며, 16.0%는 필리핀인들끼리의 사교모임이 있다. 이처럼 필리핀인 공동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까닭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으로 필리핀인 노동자를 꼽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리핀인 친구로부터 ‘매우 많이 도움 받았다’는 사람이 응답자의 62.7%, ‘많이 도움 받았다’는 20.9%이다. 전체의 83.6%는 필리핀인 친구로부터 도움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친구를 도와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 같은 것을 갖고 있다. 이것 역시 필리핀인 공동체의 접착제 역할을 한다.

### 3. 경제위기의 적응 양식

1997년 연말을 휩쓴 경제 위기는 마석 필리핀인 공동체는 큰 변화를 겪었다. 경제한파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필리핀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였다. 그들 중 일부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 유지를 하며 버텼고, 또 다른 일부는 필리핀으로 귀국하였다. 더구나 법무부는 미등록노동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범칙금을 면제해 주는 조치를 1997년 12월 27일부터 1998년 4월 30일까지 실시한 데 이어, 다시 7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하였다. 즉 현지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1998년 7~8월에는 장기간의 실업으로 견딜 수 없게 된 필리핀인 노동자들은 많이 귀국한 상태였다.<sup>18)</sup>

총 응답자 121명 중 취업 중이라고 밝힌 사람은 39.0%였고, 실업 상태라고 말한 사람은 35.8%, 응답을 기피한 사람이 25.2%이었다. 질문지의 앞 뒤 문항에 비하여 이 질문에 무응답자가 유독 많은 것을 고려할 때, 그들 중 상당수는 실업도 취업도 아닌 이른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sup>19)</sup>

유효 응답자 113명의 월 평균 임금수준은 620,050원이다. 최저 임금 10만원에서 최고 임금 90만원까지 소득 분포가 다양한 것은 실업자-아르바이트생-취업자의 경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로 필리핀인 노동자의 임금도 평균 87,430원이

〈표 8〉 한국의 경제위기 후 필리핀인 노동자의 소득 변동

(N=103)

임금 변동	변동 폭(원)	비율(%)
인상	400,000	1.0
	100,000	1.0
	50,000	1.9
불변	0	22.3
삭감	-20,000	1.0
	-35,000	1.0
	-50,000	13.6
	-100,000	33.0
	-120,000	1.0
	-130,000	1.0
	-150,000	4.9
	-200,000	15.5
	-300,000	1.0
	-400,000	1.0
-550,000	1.0	

18) IMF 이후 마석에 남은 사람들은 면접을 할 수 있었지만 필리핀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스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마석에 남은 사람들은 귀국한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적응을 잘 한 사람들, 대체로 일을 잘하고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인 경향이 있다고 했다. 즉 상대적으로 체류기간이 길어서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한국 문화에 적응한 사람들은 경제위기에도 직업을 유지하기 쉬웠고, 또 비록 실적을 했어도 취직의 가능성과 기대감이 컸다고 볼 수 있다.

19) 1998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약간씩 되살아나기 시작함에 따라, 경기도 마석 공단 내의 구인(求人)이 늘기 시작했고, 특히 결혼과 이사철에 접어든 1999년 3월 이후에는 가구공장에 활력 다시 들고 있다. 그래서 1999년 말 현재,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 노동자든 취업 중인 외국인노동자의 비율은 IMF 이전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락하였다. 그러나 <표 8>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응답자의 26.2%는 소득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몇몇 극단적 사례(outlier)를 제외하고는 200,000원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인데, 이를 고려하면 임금수준의 하락보다는 취업기회의 축소가 그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더 큰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원화의 대 달러 가치 저하도 고려할 수 있으나, 그들이 원화를 달러로 바꾼 다음 다시 페소로 환전하게 되면 큰 변동이 없다. 페소의 가치도 더불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실업상태는 수입 없이 지출만 계속되기 때문에, 필리핀인 노동자가 ‘지출 극소화 전략’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은 이내 한계에 도달한다. 한 여성 ‘귀환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의 경제 위기 때문에 이산가족이 되었다. 그는 한국에서 만난 필리핀인 남성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기르며 한국에 살고 있었다. 1997년 말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부도로, 그는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지출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1998년 3월 아들을 필리핀으로 보냈다.

1997년은 한국 경제가 기울기 시작한 해였다. 마석의 가구공장들도 일감이 줄어들면서 우리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하였다. 그 해 연말의 외환위기는 우리에게도 결정적 타격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둘이 막 지난 아들을 먼저 필리핀으로 귀국시켰다. 고향에 살고 있는 남편의 누나가 우리 아들을 양육해주기로 하였다(V씨, 여, 25세).

그 역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번 돈을 마냥 까먹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1998년 5월 필리핀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의 남편은 임금수준은 삭감되었지만 여전히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잔류하였다. 그의 남편은 대략 2년 정도 더 일하여 필리핀에서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금을 마련한 다음 필리핀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한다.

#### 4. 필리핀 사회와 경기도 마석의 상호작용

경기도 마석의 필리핀인들은 한국에서 번 돈을 필리핀으로 송금하고 있다. 그들은 월 평균 384,950원을 송금하는데, 이는 수입의 62.1%다. 필리핀 현지의 가족은 그 돈을 부채 상환(35.2%), 주택 건축비(29.5%), 식료품비(23.0%), 의복비(15.6%), 자영업 자금(15.6%), 가족의 학비(14.8%), 집세 또는 지대(12.3%), 의료비(9.8%), 토지 구입비(5.7%), 기타(3.3%)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확대가족의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필리핀 사회는 가족 중 한 명이 나가서 보내준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집을 사기도 한다. 본 연구자들이 필리핀 현지조사를 통해 발

견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송금액이 가족 중 다른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종종 사용된다는 것이다.

내가 한국에서 일하며 번 돈은 대략 미화 10,000달러(1,300만원) 정도이다. 나는 그 돈을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송금하였고, 어머니는 그 돈을 다른 브로커에게 지불하고 이탈리아로 일하러 떠났다(J씨, 남, 32세).

가족 중에서 각자 다른 나라로 일하러 나가 있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형 중에 한 명은 한국에서 3년간 일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태리로 가서 클럽 웨이터로 일하고 있다. 누나 중에서 한 명은 스위스에 간호사로 일하러 갔다가 그곳 사람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고, 다른 누나 두 명은 이태리에서 가정부로 일하러 간지 10년 정도 되었다. 스위스에 간 누나가 보내준 돈으로 집을 샀고, 현재 형이 운전하는 지프니(소형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도 샀다(T씨, 남, 26세).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육아의 부담 때문에 이동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이때 친족공동체가 이 부담을 대신할 수 있다면 이동은 훨씬 자유스러워진다. 할머니나 숙모 등이 아이들을 돌봐주기 때문에 어머니가 없는 경우에도 별 문제가 없다.

나는 임신 6개월이 될 때까지 공장에서 일을 했었다. 그 후로는 출산 때인 1996년 9월까지 쉬었다. 아이가 태어나니까 우리 부부가 함께 일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먼저 귀국시키기로 결정하고 1997년 6월에 필리핀으로 여행을 떠나는 잘 아는 한국인에게 부탁해서 아이를 보냈다. 필리핀에서는 친정 어머니가 아이를 대신 키워줬다(N씨, 여, 33세).

결국 필리핀 사회에서 해외 취업은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규범이란 한 사회의 주어진 상황에서 성원들이 해야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규칙들을 의미한다. 만약 사회적 규범을 넘어서서 일탈할 경우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게 된다. 외국으로 일하러 나가는 것이 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범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이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한될 것이다. 반대로 그것이 사회 내에 존재하는 규범에 부합하면 이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보편적인 삶의 방식으로 인정될 것이다. 필리핀은 1970년대부터 정책적으로 외국으로 일하러 나가는 것을 장려해왔고, 국민 모두에게 기회만 되면 나가는 것이 좋다는 규범이 정착되었다.

이 동네에는 약 62가구가 있는데 절반 정도의 가구가 외국에 일하러 간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 중에서 10명에서 15명 정도는 원양어선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T씨,

남, 26세).

우리 동네에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이 전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가구의 90% 정도가 외국에 취업자가 있다. 나도 한국에서 일을 했었고 지금은 원양어선을 타고 있다. 바로 밑의 남동생도 원양어선을 타고 있으며, 막내 남동생도 한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지금은 배를 타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다(N씨, 남, 30세).

이곳에는 269가구 1,249명이 산다. 이 중에서 30가구 이상이 외국에 일하러 간 가구원이 있다. 이들이 일하러 간 나라들을 꼽아보면, 이태리·홍콩·스위스·말레이시아·한국·대만·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있다. [……] 필리핀은 직업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직업이 있다고 해도 버는 돈이 너무 적어서 살기가 힘들다. 여기의 월급으로는 먹고사는 데 필요한 음식밖에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일하려고 하는 것이다(M씨, 여, 초등학교교사).

## VI. 결론

필리핀 사람이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연결망을 이용한다. 이들은 이동에 필요한 금전적인 비용,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공동체의 역할, 이동에 필요한 정보, 이동을 정당화시켜주는 사회적 규범 등을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서 확보한다. 외국으로 나가려는 필리핀 사람들 중에서 한국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각종 비용이나 기대 임금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이 제공하는 혜택에 기초해서 선택을 한다.

사회적 연결망은 이동에 수반하는 비용과 위험을 감소시키므로 일단 망이 구축되면 급속하게 확장되는 성향을 갖는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국가간에 이동하는 노동력의 양을 결정하는 데 송출국의 사회적 연결망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90년대에 들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노동자의 수가 급증한 것은 한국 내에서의 노동력 수요 증대에도 원인이 있지만, 일단 시작된 사회적 연결망이 급속하게 확장된 데도 그 원인이 있다. 한국의 경기 침체로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떠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이지만 여전히 직업을 찾아서 입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과 몇 차례에 걸친 불법체류 벌금 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송출국의 경제 상황과 이미 형성된 사회적 연결망이 이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한국 정부가 취하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노동력 송출국의 상황은 배제한 채 유입국의 시각에만 입각하여 취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경기 침체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져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고

는 하지만 이들은 한국의 경기가 회복되면 언제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이들의 입국을 규제하려는 방식의 정부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불법화, 음성화 되어가고 있는 현재의 외국인 노동자 층원 방식을 합법화, 투명화하여 한국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999. 9. 14 접수; 1999. 12. 20 채택)

## 참고문헌

- 김종일 · 이상철 · 이종구 · 설동훈. 1995. "국제노동력이동과 외국인의 국내 취업: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 《경제와 사회》 26(여름): 172~207.
- 나영선. 1997. 『외국인근로자 국내 도입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설동훈. 1996. "한국사회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외국인노동자의 유입과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설동훈. 2000(근간). 『노동력의 국제이동: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비교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Arcinas, F. R. 1986. "The Philippines." Pp. 259~305 in *Migration of Asian Workers to the Arab World*, edited by Godfrey Gunatilleke. Tokyo: United Nations University.
- Bian, Yanjie. 1997. "Bringing Strong Ties Back In: Indirect Ties, Network Bridges, and Job Searches in Chin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3): 366~385.
- Böhning, W. Roger. 1984. *Studies in 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 London: The Macmillan Press.
- Böhning, W. Roger. 1998. "Conceptualizing and Simulating the Impact of the Asian Crisis on Filipino's Employment Opportunities Abroad."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7(2/3): 339~367.
-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Pp. 241~258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John G. Richards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Burt, Ronald S. 1992. *Structural Hol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stles, Stephen, and Mark J. Miller. 199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 S95~S120.
- Granovetter, Mark.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Granovetter, Mark. 1983. "The Strength of Weak Ties: A Network Theory Revisited." *Sociological Theory* 1(1): 201~233.
- Granovetter, Mark. 1995. *Getting a Job: A Study of Contacts and Careers*, Second Editio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ross, Jon, and Bruce A. Lindquist. 1995. "Conceptualizing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A Structuration Perspectiv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9(2): 317~351.
- Gurak, Douglas T., and Fe Caces. 1992. "Migration Networks and the Shaping of Migration Systems." Pp. 150~176 in *International Migration Systems: A Global Approach*, edited by Mary M. Kritz, Lin Lean Lim, and Hania Zlotnik. Oxford: Clarendon Press.
- Lin, Nan. 1982. "Social Resources and Instrumental Action." Pp. 131~145 in *Social Structure and Network Analysis*, edited by Peter Marsden and Nan Lin.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Lin, Nan. 1990. "Social Resources and Social Mobility: A Structural Theory of Status Attainment." Pp. 247~271 in *Social Mobility and Social Structure*, edited by Ronald L. Breige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n, Nan. 1999. *Social Resources and Social Capital: A Theory of Action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n, Nan, and Mary Dumin. 1986. "Access to Occupation through Social Ties." *Social Networks* 8(4): 365~385.
- Lin, Nan, Walter M. Ensel, and John C. Vaughn. 1981. "Social Resources and Strength of Ties: Structural Factors in 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4): 393~405.
- Marsden, Peter V. 1987. "Core Discussion Networks of America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1): 122~131.
- Marsden, Peter V., and Karen E. Campbell. 1984. "Measuring Tie Strength." *Social Forces* 63(2): 482~501.
- Marsden, Peter V., and Jeanne S. Hurlbert. 1988. "Social Resources and Mobility Outcomes: A Replication and Exclusion." *Social Forces* 66(4): 1038~1059.
- Massey, Douglas S. 1990a. "Social Structure, Household Strategies, and the Cumulative

- Causation of Migration." *Population Index* 56(1): 3~26.
- Massey, Douglas S. 1990b. "The Social and Economic Origins of Immigration."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10:60~72.
- Massey, Douglas S., and Felipe García España. 1987. "The Social Process of International Migration." *Science* 237:733~738.
- Massey, Douglas S., Joaquín Arango, Graeme Hugo, Ali Kouaouci, Adela Pellegrino, and J. Edward Taylor. 1993.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431~466.
- McMichael, Philip. 1996.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Thousand Oaks CA: Pine Forge Press.s
- Portes, Alejandro. 1995. "Economic Sociology and the Sociology of Immigration: A Conceptual Overview." Pp. 1~41 in *The Economic Sociology of Immigration: Essays on Networks,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edited by Alejandro Porte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Portes, Alejandro, and Julia Sensenbrenner. 1993. "Embeddedness and Immigration: Notes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Economic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6): 1320~1350.
- Watanabe, Shin. 1987. "Job-Searching: A Comparative Study of Male Employment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박경태는 미국 텍사스주립대학(Austin)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발표 논문으로는 "소수민과 노동시장", "미국 흑인의 자영업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며, 현재 외국인노동자, 화교, 혼혈인 등과 같은 한국 내의 소수민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전자우편주소는 ktpark@mail.skhu.ac.kr이다.

설동훈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1997~1999년 박사후연수를 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경제사회학, 사회계층론, 사회발전론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저서로는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1999)와 『노동력의 국제이동: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비교연구』(2000)가 있다. 전자우편 주소는 dhseol@duke.edu이고, 인터넷 홈페이지는 <http://www.duke.edu/~dhseol>이다.

이상철은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며 현재 제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산업사회학과 사회변동론이고 주된 관심분야는 노동운동과 사회발전이다. 전자우편주소는 sanglee@cheju.cheju.ac.kr이다.